

제33회 장수군민의 날

Euiam Ju Nongae Festiv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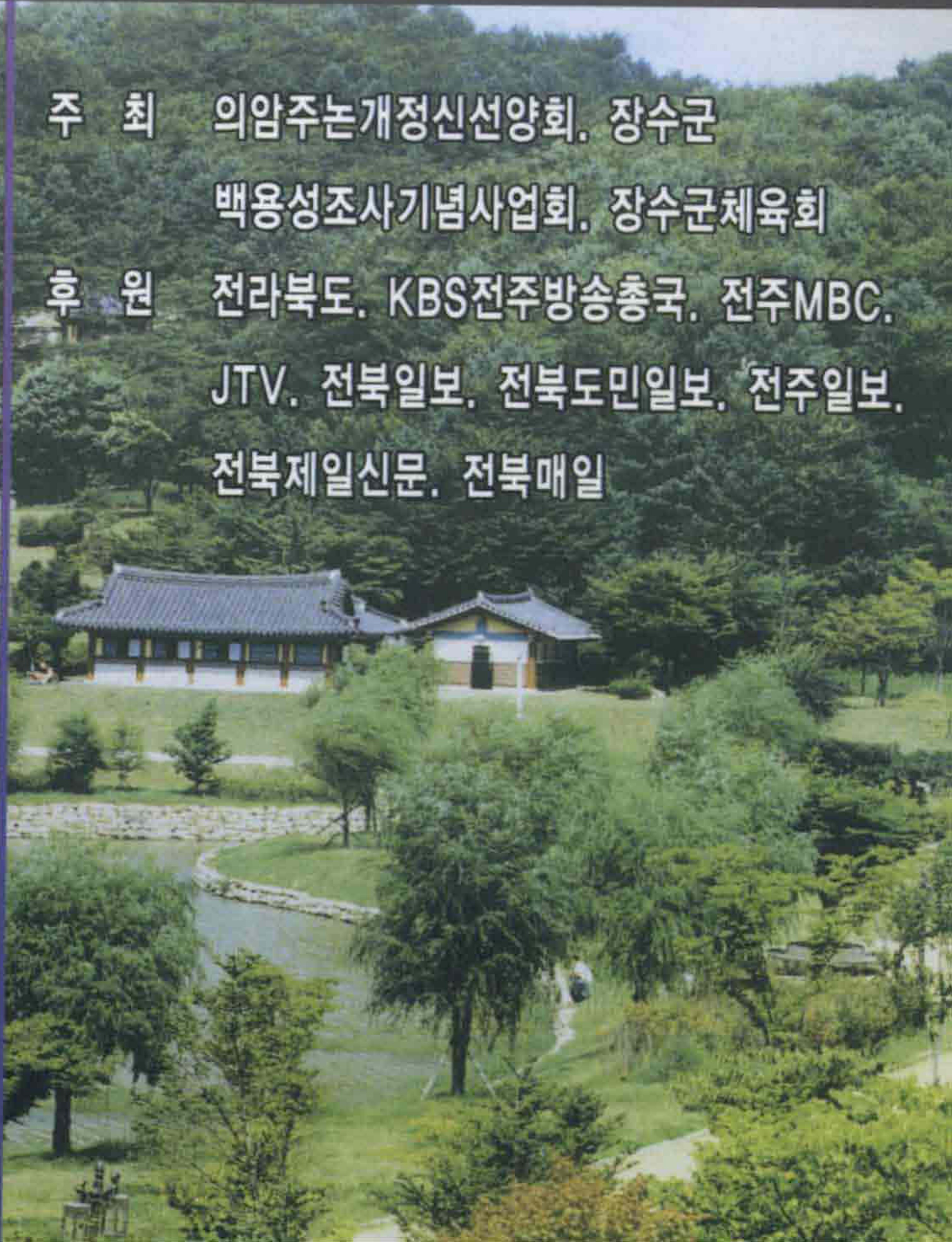
탄신426주년기념

의암주논개대축제

Euiam Ju Nongae Festival

2000. 9. 28(목)~10. 1(일) 장수군 일원

주 최 의암주논개정신선양회, 장수군
백용성조사기념사업회, 장수군체육회
후 원 전라북도, KBS전주방송총국, 전주MBC,
JTV, 전북일보, 전북도민일보, 전주일보,
전북제일신문, 전북매일



의암주논개 약사

- 1574년 9월 3일(갑술년 갑술월 갑술일 갑술시) 장계면 대곡리 주촌마을에서 출생.
- 부친은 주달문이고 모친은 밀양박씨로 학덕이 높은 집안임.
- 어릴때 부친 별세. 편모슬하에서 자람.
- 숙부 주달무가 김풍헌의 민며느리로 팔려고 하자 모녀는 모친의 친정인 경상남도 안의현으로 피신.
- 김풍헌의 고소로 장수현 포리에 피체(被逮)취조 결과 무죄방면. 무의무탁한 논개모녀를 최경희 현감이 내아에 머물게함.
- 부인이 사망하자 1591년(선조 24년) 최현감의 후실로 들어감.
- 1592년(선조25년) 4월 13일 임진왜란 발발.
- 최현감이 경상우도 병마절도사로 제수 받자 주논개는 진주성으로 따라감.
- 1593년 6월 29일 진주성 함락. 최경희 장군 남강에 투신 순국.
- 동년 7월 7일 촉석루에서 왜군 승전연에 기생으로 가장 연회에 참석하여, 왜장 게야무라 로꾸스께(毛谷村六助)를 유인 남강에 투신 순절.



活氣차고 內實있는 長水建設

- 1. 自治行政의 生産性 向上
- 1. 山地를 活用한 特化産業 育成
- 1. 所得増大를 위한 地域開發
- 1. 忠節의 高장다운 觀光振興

우리 장수군민은 자랑스러운 三節의 빛난 얼을 繼承하고 밝고 맑은 心性으로 山紫水明한 내 고장을 豊饒롭게 가꾸는 주인이 된다.

- 1. 우리 郡民은 自由를 尊重하고 責任과 義務를 다하여 民主文化를 꽃 피운다.
- 2. 우리 郡民은 良心과 信義를 지키고 協同奉仕하며 公共秩序를 生活化 한다.
- 3. 우리 郡民은 勤勉 誠實하며 進取的인 意志로 잘 사는 내고장을 開拓한다.
- 4. 우리 郡民은 心身을 鍊磨하여 健全한 趣味와 情緒純化로 幸福한 삶을 영위한다.
- 5. 우리 郡民은 傳統文化를 啓發하고 서로 和合하여 내 故郷 사랑에 앞장선다.

군의 심볼



군의 나무 / 소나무



군의 새 / 비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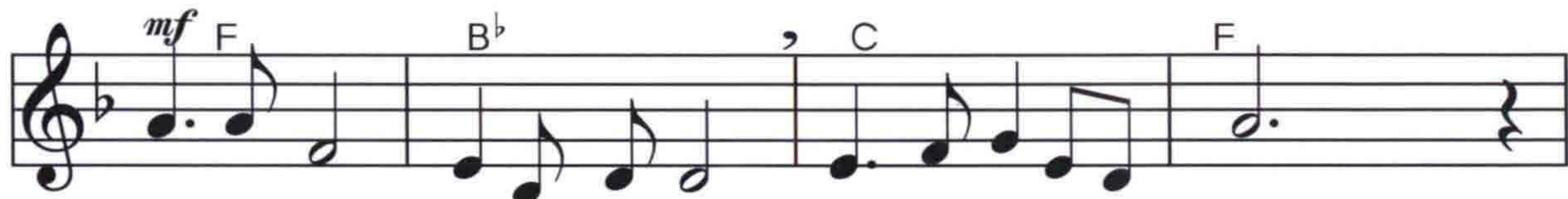


군의 꽃 / 산철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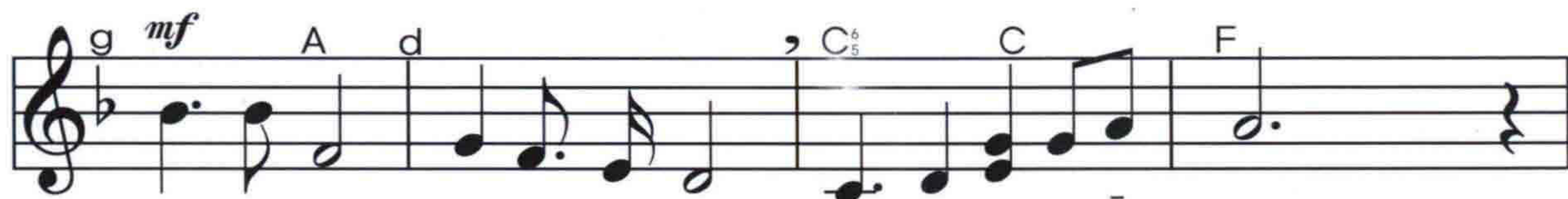


장수의 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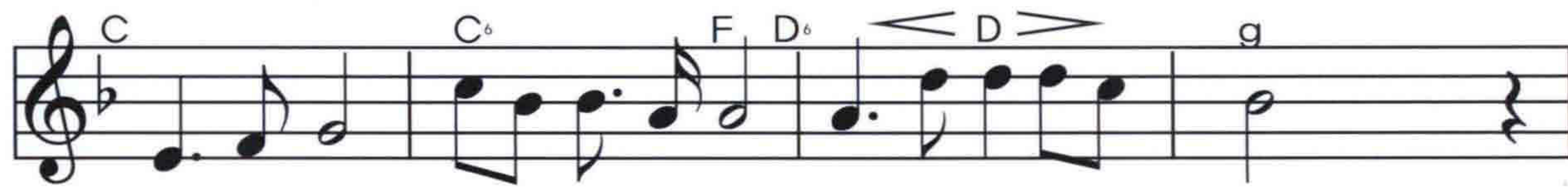
이기반 시
이준복 곡



장 안 산 굽 이 굽 이 힘 찬 맥 박 -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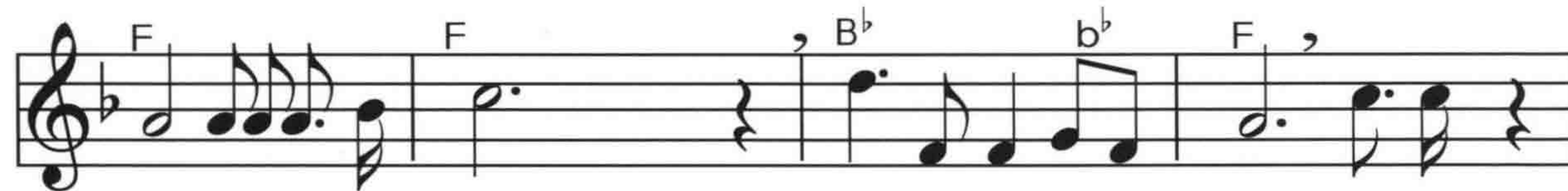
골 마 다 즐 기 차 게 흘 러 넘 치 - 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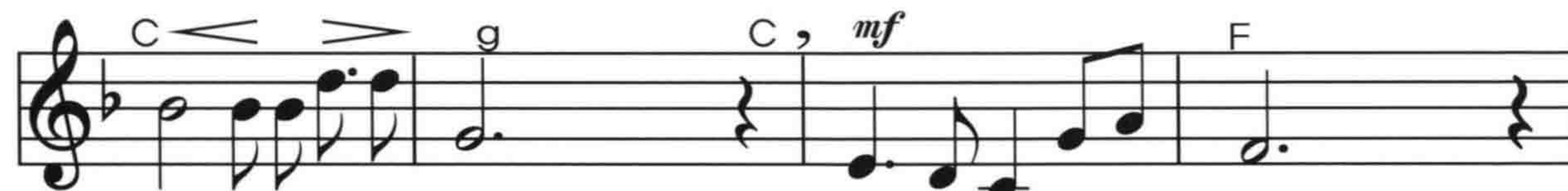
정 답 게 아 - 림 다 운 우 리 의 터 - 전



행 복 의 씨 앓 뿌 려 서 로 가 꾸 - 세 장 하



고 - 거 룝 하 다 삼 절 의 고 - 장 새 립



게 - 빛 을 내 는 희 망 의 장 - 수

2. 분수령 맑은물에 인심도 좋아
복되게 이어받은 조상의 유산
아끼고 사랑하며 하나로 뭉쳐
이땅의 낙원으로 변영이루세

(후 령)
장하고 거룩하다 삼절의 고장
새롭게 빛을내는 희망의 장수

의암 주논개 대축제 일정표



구분	오 전	오 후	저 녀
9/28(목)	<p><의암공원> □ 야외 공연장 준공식 및 민속놀이 한마당 : 10:00~15:30</p> <p>· 준공식 · 고리걸기, 줄넘기, 투호씨름, 삼절마라톤, 제기차기, 공차고돌아오기</p>	<p><의암공원> □ 창작 마당극 『논개』 : 16:00~17:10</p>	<p><의암공원> □ 길놀이 시가 행진 : 18:30~19:20 □ 전야제 · 개식선언 : 19:30 · 물과 빛과 혼불의 만남 : 19:32~21:00 - 혼불점화 - 의암호 『그리운 논개』 공연 - 불꽃놀이 - 국악가요 등 공연</p>
9/29(금)	<p><논개생가지> □ 민속 참여 행사 : 10:00~15:00 · 널뛰기, 그네뛰기, 짚신만들기, 도깨비 씨름 □ 전북도립국악원공연 : 10:00~10:50 □ 생가준공식 : 11:00</p>	<p><의암공원> □ 학생백일장 대회 : 10:00~16:00</p> <p><논개생가지> □ KBS 전국노래자랑 : 14:00~16:00</p> <p><백용성조사생가지> □ 생가준공식 : 14:00~16:00</p>	<p><의암공원> □ 청소년축제 한마당 : 17:30~21:00 · 주논개 관련 퀴즈대회 · 청소년가수 초청공연 · 영호남 대학 동아리 초청 공연(댄스, 치어리더)</p>
9/30(토)	<p><의암공원> □ 논개제례 : 09:00 □ 기념식 : 10:00 □ 영호남협연 국악과 총절무 공연 : 11:10~12:20</p>	<p><의암공원> □ 논개선발 : 13:30~16:30</p> <p><사과공원> □ 국제 사과 심포지엄 : 10:00~18:00 □ 사과 그리기 대회 : 13:00~15:00</p>	<p><의암공원> □ 군민노래자랑 : 18:00~20:00</p>
10:1(일)	<p><의암공원> □ 전북 농악 경연대회 : 08:00~18:00 □ 창작 마당극 『논개』 : 14:00~15:10</p> <p><백화여자고등학교> □ 전북 탁구대회 : 10:00~17:00</p> <p><장수 중·고등학교> □ 친선 축구대회 : 10:00~17:00</p>		<p><의암공원> □ 푸른음악회 : 19:30~21:30</p>
기타행사	<p>□ 의암 주논개 추모 전국 무용제(백화여고) : 9. 4 ~ 9. 7 □ 찾아가는 미술관, 박물관(군민회관) : 9. 27 ~ 9. 30 □ 특별기획전(의암공원)서예, 사진, 시화, 장수장인전(벼루, 목·석공예, 부채, 거문고, 가야금 등) 제1회 관광장수 전국 사진공모전 등 : 9. 28 ~ 10. 1 □ 경노잔치 (의암공원) : 9. 30. 12:30~13:30 □ 장안산 등반대회 (논개생가지) : 9. 29. 16:00 ~ 9. 30. 17:00</p>		
부대행사	<p>□ 말타고 사진찍기, 승마 체험 □ 캐릭터, 마스코트와 사진찍기 □ 물풍선 던지기 및 사진찍기</p>	<p>□ 캐릭터, 마스코트 페이스·핸드 페인팅 □ 사과시식, 토산품 판매, 풍물 야시장 운영 □ 스타 팬 싸인회</p>	

※ 본 행사일정은 주최측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의암주논개님의 유적



▲ 생장지 사적불망비



▲ 논개 생장향수명비



의암사 기념관 ▶



◀ 단아정



▲ 논개석상



▲ 논개생가



▲ 의랑루



▲ 최경희장군추모비
의암주논개사적불망비



▲ 의암 주논개 생가지



▲ 의암사

익암주논개님이 태어나서 남강에서 순절하기까지

논개는 선조(宣祖) 7년(1574) 9월 3일 현 장수군 장계면 대곡리 주촌마을에서 훈장 주달문(朱達文)과 밀양박씨(密陽朴氏)사이에서 태어났다. 이 때가 마침 갑술년(甲戌年) 갑술월(甲戌月) 갑술일(甲戌日) 갑술시(甲戌時)여서 모두들 특이한 사주를 타고 낳다고 하였으며 그래서 논개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 술(戌)은 개(犬)을 뜻하기 때문에 이름자에 “개”를 넣은 것이다. 논개(論介)는 천품(天稟)이 영리하고 자태가 아름다웠다.



선조(宣祖) 11년(1578) 논개의 작은아버지인 주달무는 김풍헌의 모자란 아들에게 논개를 민며느리로 팔아 넘겼다. 그러나 논개 모녀가 완강히 반대하고, 한편 주달무가 도망하자 김풍헌은 논개 모녀를 상대로 장수현감에게 소장(訴狀)을 올렸다. 재판결과 무죄선고를 받았지만 마땅히 돌아갈 곳이 없는 두 모녀는 내아에 머물게 되었다.



선조(宣祖) 25년(1592) 왜적 30만 대군이 우리나라를 침략하자 장수현감 최경회(崔慶會)는 다음해 4월 경상우도 병마절도사(慶尙右道兵馬節度使)로 임명되어 진주(晋州)로 부임하게 되었다. 이때 논개도 최현감에게 간청하여 함께 따라갔다. 당시 전세(戰勢)가 불리하여 후퇴하던 왜군은 퇴로를 막고 있는 진주성을 공격키 위하여 총력을 기울였다. 이에 우리측에서는 성내(城內)의 모든 관군과 의병 및 민간인이 총동원하여 필사적으로 반격하였다. 아녀자들도 모두 나서서 치마폭으로 돌맹이를 나르고 큰 가마솥에 물을 끓여 성벽을 기어오르는 왜병에게 퍼 부으면서 최후까지 싸웠다.



선조(宣祖) 26년(1593) 6월 29일 불행하게도 진주성(晋州城)이 함락되고 평생을 의지하려던 최경회(崔慶會) 부군(夫君)마저 전사(戰死)하자 논개는 슬픔으로 날을 새웠다. 그러자 승리에 도취한 왜병들이 7월 7석날을 기해 축석루(矗石樓)에서 승전잔치를 연다는 소식을 듣고 논개는 잔치마당에 나갔다. 한참 흥이 돋구어질 무렵 그는 왜장 게야무라 로꾸스케(毛谷村六助)를 위암(危岩)으로 유인하여 그의 허리를 껴안고 함께 절벽아래 남강(南江)으로 몸을 던졌다. 19세의 꽃다운 나이로 나라를 지킨 거울이 된 것이다.

식사 (式辭)

오늘 높고 푸른 가을 하늘아래 우리겨레의 영원한 충절의 표상인 의암 주논개님의 생가 정화사업 준공식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있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국정에 여념이 없는 가운데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정세균 의원님을 비롯하여 멀리 중국 하남성 임설매 부성장 일행 그리고 일본과 서울 등 전국 각지에서 참여하여 주신 귀빈과 군민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의암 주논개님은 우리 국민의 가슴속에 그리운 분으로 자리잡힌 만큼이나 논개님의 생애와 신분에 관해 많은 논란을 가져온 게 사실입니다.

우리군은 이러한 논란을 접어두고 서양의 『잔다르크』처럼 세계속의 논개로 새롭게 탄생시키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이곳은 덕유산에서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백두대간의 한자락으로 경상남도 함양군 서상면과 재 하나를 사이에 두고 동쪽에는 논개님의 묘지가 서쪽에는 논개님의 생가가 있으며, 논개님의 조부모가 살았던 곳으로 조부모님의 묘가 있기도 합니다.

당초 논개님의 생가터는 이곳에서 바로 내려다 보이는 대곡 저수지가 있는 자리로서 1986년 저수지가 축조되면서 마을 당산부근으로 옮겼으나 장소가 협소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었습니다.

제가 군수로 취임한 직후, 군민의 오랜 숙원인 논개생가지 정화사업을 천명으로 알고 1996년 토지매입을 시작한 이래 5년동안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후 완공에 이르렀습니다.

오늘이 있기까지는 전 현직 대통령의 관심으로 지원된 특별교부세와 국비를 근간으로하여 국회 정세균 의원님, 도지사님 그리고 3만여 군민의 성원은 물론 열악한 군 재정형편을 인식하고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애썼한 사랑으로 내고향 담배판매운동에 앞장서 주신 재경향우회원님 등의 뜨거운 애향심과 각계각층의 협력과 지원의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이자리를 빌어 진정 고맙고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잘못 전해져 온 논개사를 바로잡기위해 수고해 주신 전 고려대학교 홍일식 총장님, 순천대학교 오병무교수님을 비롯한 학계와 향토사학가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한편 조상대대로 물려 받아 삶의 터전인 전답을 생가 정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쾌히 승락해주신 지역주민들에게도 재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완공된 논개생가지와 논개사당을 잇는 관광순환 도로가 완공될 때 국민의 마음속에 우국충정을 일깨워 나라사랑 정신을 심어주는 후세 교육장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고 진주 거사지로서의 중요성 만큼이나 탄생지로서의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지난 6월 27일 서울 워커히 호텔에서 『의암 주논개정신선양회』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이제는 전국적인 규모의 사단법인으로 출범하였습니다. 지난 달에는 일본 후쿠오카 민단지회장을 역임한 양승호 회장님이 앞장서 많은 재일교포와 중국인들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국제사회에서도 논개님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으려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자 합니다.

이제 세계속의 논개님으로 부상되고 있는 만큼 작은 문제에 연연하지 말고 논개님의 호국정신을 기리는데 국민 모두가 동참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가시는 시간까지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 9월 29일

장수군수 김 상 두





존경하는 장수군민 여러분!

수확의 축복이 가득찬 청명한 하늘아래 우리 모두의 정신적 지주이신 의암 주논개님의 탄신 426주년을 맞아 논개님의 생장지인 이 곳에 부지 2만평의 규모로 기념관, 시비, 석상, 단아정, 의랑루 등을 시설하여 논개님의 생가지가 조성됨으로서 논개 대축제와 병행하여 전국 규모의 거국적인 준공식을 갖게 된것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여러분이 잘아시다시피 장수지역 선현들의 발자취를 더듬어보면 나라가 위급할 때 구국의 길에 나서 주셨고, 청빈한 생활로 우리 민족의 귀감이 되신 2덕 3절 5의를 비롯한 효부와 열녀를 많이 배출한 충효의 고장으로 자랑스런 고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주논개님은 나라를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살신성인 하신 분으로 어느 누구보다도 훌륭한 애국 열사입니다.

그러나 논개님의 가신지 400여년이 지난 오늘에서야 이처럼 논개님의 생가지 확장 정화사업이 완공되어 문화 유적지로서 면모를 갖추게 된 것은 때늦은 감은 있으나 3만 장수군민과 입을 사랑하는 온국민의 염원이 이루어지는 보람있는 일로 마음 벅차기 그지 없습니다.

앞으로 논개사의 올바른 정립은 물론 우리 민족의 가슴속에 영원한 충절의 여인상으로 자리매김하는데 큰 기폭제가 되리라 생각되며, 논개님의 얼을 이어 받으려는 충효정신의 교육장으로 널리 활용되리라 믿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군민의 오랜 숙원인 생가 조성사업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오신 김상두 장수군수님을 비롯한 선양회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노고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생가지 준공식과 신명나는 의암 주논개 대축제로 장수가 세계속에 관광명소로 부각되길 바라면서 군민 모두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 9월 29일

(사)의암주논개정신선양회장 장 명 수



장수군 삼절(三節)의 하나이며, 장수군민의 정신적 지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의암 주논개의 생가가 준공된데 대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임진왜란시 왜군의 침략에 분연히 맞서 어려움에 처한 나라를 구하고자 자신의 몸을 초개와 같이 던진 주논개의 숭고한 애국애족정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겠습니다.

장수군에서는 이러한 주논개의 거룩한 정신을 면면히 선양하고자 지난 '97년부터 생가지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오늘 준공식과 함께 이를 기리기 위한 대축제를 개최함으로써 다시금 주논개의 얼을 되새기게 하고 있습니다.

주논개의 나라사랑 정신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충(忠)의 본보기로서 영원한 표상으로 빛나고 있음을 생각할 때

이제 우리는 그동안 지나쳐왔던 주논개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자료 조사·정리와 함께 그의 국난극복 정신을 오늘의 시대상황에 맞게끔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행히 최근 주논개에 대한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의암주논개정신선양회』의 발족은 매우 시의 적절한 조치라 하겠습니다.

이것은 역사적 흐름을 올바르게 아우르는 것이라 하겠으며, 주논개의 정신을 새로이 재조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21세기 문화의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의 나아갈 바를 제시할 수 있는 중요한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더욱 그러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주논개 생가에 대한 준공식을 계기로 장수군의 미래를 위해 힘차게 전진할 수 있는 값진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며, 아울러 장수군민의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2000년 9월 29일

전라북도지사 유 종 근



‘하늘이 푸르다 못해 눈이 부시다’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맑은 가을날입니다. 발갛게 익은 사과 향내가 온 고을을 진동시키고, 추수가 막 시작되는 들녘은 농부님들의 잔걸음으로 가득합니다. 남북으로 이어진 백두대간의 끝자락, 가도가도 협곡으로 이어지며 울창한 수림을 끼고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장수!



南으로는 섬진강의 줄기가, 西로는 금강을 굽이쳐 흐르며 오랜 세월의 역사를 보듬고 있는 자랑스러운 고장입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고장에서 총절의 표상인 의암 주논개님의 탄신 426주기를 맞아 그동안의 생가지 조성사업을 마무리 짓고 준공식을 갖게 된다니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을 듯 싶습니다. 오늘만큼은 아직도 역사속에 올바르게 정립되지 못하고, 우리 후대들을 원망하고 계실 것만 같은 논개님의 ‘나라사랑’ 정신을 가슴속 깊이 되새겨 보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고장의 많은 뜻있는 분들의 노력으로 우리 역사속에 논개님의 총절정신이 점차 결실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의암 주논개 대축제』 기간중에 장수 군민의 날이 33돌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이 역사적인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의암 주논개 대축제가 오늘부터 나흘동안 병행하여 열린다고 합니다. 오래전에 지역을 떠나 타향에서 정든 고향을 그리던 분들도 많이들 방문을 하신다고하니 참으로 오랜만에 우리 장수가 활력이 넘치는 듯 합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유년시절의 동무들과 즐겁게 과거로의 시간여행도 즐겨보시고,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모시어 온 가족이 참여하는 뜻깊은 축제의 場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다시한번 의암 주논개 생가지 조성사업 준공식을 갖게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오늘이 있기까지 그동안 애쓰신 의암주논개정신선양회, 장수군청 관계공무원,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 9월 29일

국회의원 정 세 균

축사(祝辭)

존경하고 사랑하는 3만여 장수 군민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국화향기 그윽하고 풍요로움이 온 누리에 가득한 청명한 가을 하늘아래 탄신 426주년 의암 주논개 대축제를 맞이하여 의암 주논개 생가지 준공식을 갖게 된 것을 3만여 군민 여러분과 더불어 경축해 마지않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속에 의암 주논개님의 생가지 건설을 위해 정성을 다 해오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공사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격려와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긴 공사기간 중에 불편함을 참고 협조를 다 해주신 이 지역 주민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준공식을 갖게되는 의암 주논개님의 생가지 조성사업은 지난 '97년부터 금년까지 2만여평의 광활한 면적위에 총 60억여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어 4년간의 오랜 공정 끝에 완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조성된 생가지는 임진왜란 당시 애국충절의 일념으로 19살의 꽃다운 젊음을 오로지 나라를 위해 바친 논개님의 숭고한 애국충절을 널리 기리기 위한 것으로서 논개님의 숭고한 호국정신을 기리기 위한 것이며, 역사관을 재정립하는 산 교육장으로서, 후손들에게 물려줄 자랑스런 문화유산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는 논개 생가지 확장 정화사업이 부실공사가 아닌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하기 위해 20여차례의 현장확인을 통해 많은 지적과 시정을 요구해 왔으며, 면면이 이어질 지역사의 가치창출과 미래지향적인 지역발전을 접목시키고자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이제는 우리 장수군도 논개 생가지 정화사업이 완공됨으로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관광순환도로가 준공을 보게 될 때, 논개사당과 지역관광지를 연계시켜 나간다면 과거와는 달리 관광객이 스쳐가는 곳이 아니라 머물다 가는 고장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21세기 장수군의 핵심적인 기간사업으로 성장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제3대 장수군의회가 여러분의 성원속에 개원된 지 어언 2년2개월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참으로 어려움도 많았고 보람도 컸던 기간이었습니다.

우리 앞에는 아직 이루어야 할 많은 과업이 있고 난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군민 여러분과 함께라면 못할 일이 없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군민 여러분의 협력을 받아 군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주민의 소득증대와 생산적 복지를 정착시켜 모두가 함께 번영과 행복을 추구해 나가는 복지장수를 이끌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군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력을 보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려 마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이 뜻깊은 준공식이 논개님의 영전에 우리 모두가 엄숙한 결의를 다지는 전기를 마련하고, 논개님의 숭고한 애국애족의 정신을 깊이 되새기면서, 민족정기를 함양하는 산 교육장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도 우리가 애써 건설한 논개님의 생가지가 후대에도 오랫동안 우리 고장의 자랑으로 길이 남을 수 있도록 더욱 아끼고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오랜기간 동안 준공식 건설에 땀흘려오신 관계자 여러분에게 치하를 드리면서, 군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 9월 29일

장수군의회 의장 최 용 득



들녘마다 황금물결로 출렁이고 오곡백과 또한 무르익어 수확의 손길을 기다리는 결실의 좋은 계절을 맞아 『의암 주논개 생가 준공식과 더불어 다채로운 대축제』를 성대하게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생가 조성에 각별한 사명감으로 설계와 감리·시공에 참여해 주시고 오늘의 행사를 마련해 주신 사업체와 의암 주논개정신선양회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깊이 치하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장수군민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해 주신 내외귀빈 여러분!

400여년 전의 의암 주논개의 생가를 복원하고 조성한다는 것은 우리 민족의 얼을 되살린다는 점에서 너무나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나온 과거의 역사를 배우면서 내일을 준비하는 일이야말로 시대흐름의 순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의암 주논개님의 생가를 복원하고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후손으로써 마땅히 해야 할 매우 가치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의암 주논개님은 임진왜란의 위태로운 국난속에서 나라를 구하고자 적장을 유인하여 산화함으로써 꽃다운 젊음을 나라에 바친 조국의 수호신입니다.

이러한 숭고한 정신을 만고에 길이 전하고 우리의 표상으로 삼고자 장수군민의 뜻을 한데 모아 4년여에 걸쳐 고증하며 시공하여 오늘 준공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의암 주논개님의 숨결이 살아나는 생가지를 민족자산으로 보존하고 가꾸어 세계인이 찾는 관광 명소로도 부각 되어지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의암 주논개님의 생가지 복원·조성사업 준공식을 계기로 예향전북과 장수군의 자긍심이 더 한층 높아지기를 바라며 국민모두의 가슴마다에 우국충정의 높은 뜻이 심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대축제가 더욱더 번창하고 변모하여 향토문화발전은 물론 장수군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의암 주논개 생가 조성사업과 대축제 준비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에게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 9월 29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김진익

장수는 임진왜란시 愛國忠節의 一念으로 靑島를 나라에 바쳐 산화하신 義巖 朱論介님이 탄생하신 곳입니다. 서기 2000년은 김일성 집단의 남침으로 300만 동족이 살해된 6.25 남침 50주년이 되는 해이며 아직도 그 비극을 잊지 못하고 있는 이때 義巖 朱論介님의 생가지 성역화를 이룩했다는 것은 우리의 民族正氣와 護國精神을 선양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며 우리는 일찍이 이분의 생가지를 성역화하여 보존하므로서 愛國忠節의 정신을 선양하고 敎訓삼으며 면면히 이어 갔어야 할 것인데 그렇지 못했음을 후인으로써 항상 悚懼스럽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본인은 義巖 朱論介님의 생가지 성역화사업을 顯忠祠와 같이 의당 정부사업으로 이루어졌어야 할 것이며 오늘의 준공식과 논개 대축제도 정부가 전국적인 규모로 치러야 할 것임에도 그렇게 되지 못한데 대하여 대단히 서운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장순군세는 전국에서 약하기로 으뜸간다고 하지만 金祥斗군수님, 張明洙 의암주논개정신선양회장님과 이 역사적인 행사를 기획하고 추진하신 분들을 중심으로 군민전체가 혼연일체가 되고 전라북도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의 충정 어린 협력과 지원 그리고 이분들의 愛國愛鄉 정신과 獻身的인 노력으로 성대한 준공식과 대축제를 개최하게된데 대하여 본인은 물론 온 국민은 장순군민과 이분들의 功勞를 치하하고 축하드릴 것입니다. 또한 이 생가지 성역화와 오늘의 행사는 民族正氣와 護國精神을 선양하는 象徵으로서 그 어느 행사보다도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봅니다.

오늘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사상적 혼란과 지역분열 등 민심은 극도로 불안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일찍이 없었던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는 義巖 朱論介님의 愛國忠節의 정신을 기리고 선양하는 행사를 치르게 됨은 국가민족의 총체적 위기를 풀어나가는 原動力이 될 것이라 믿으며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2000년 9월 29일

자유민주민족회의 대표 상임의장 이 철 승



국화향기 그윽한 풍요의 계절을 맞이하여 중국 하남성민을 대표하여 의암 주논개 생가지 확장 정화사업 준공식에 참석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인연이자 매우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주논개님은 이곳 대한민국 장수에서 탄생하신 여인으로서 임진왜란시 왜장을 꺼안고 진주남강 깊은 물에 몸을 던져 산화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오늘 오후 생가 복원사업 준공식을 갖게되는 백용성조사님 또한 항일 운동가로 기미년 독립운동을 주도하신 분으로서 이곳 장수는 애국지사를 많이 배출한 호국·충절의 고장임을 느끼게 합니다.

한국이 오늘날 이렇듯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나라가 어려울 때 목숨을 아끼지 않으신 이런 분들의 애국정신이 바탕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한국은 우리 중국과 함께 동양문화권에 속해 있어 옛부터 깊은 문화교류를 해왔고 앞으로 더욱 교류가 증대 되리라 봅니다.

수려한 자연경관과 한국내륙의 교통요충지로서 무한한 발전 잠재력을 가진 장수군과 주논개님 그리고 백용성조사님을 통해 이런 인연을 갖게 된 것을 우연이 아니라 생각하면서 앞으로 세계화시대에 우리 하남성과 좋은 인연으로 상호 동반자적 발전을 가져 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무쪼록 오늘을 계기로 주논개님과 백용성조사님의 업적이 재조명되고 그분들의 숭고한 넋이 한민족 모두의 가슴깊이 새겨 나아갈 수 있는 동기가 되길 바라며

끝으로 장수군의 무궁한 발전과 김상두 군수님을 비롯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마다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 9월 29일

중국 하남성 귀국화교 연합회 주석 임 설 매



오늘 이 곳 장수 군민이 한 마음으로 만고의 순국열사이신 의암 주논개님의 생가를 복원하고 그 숭고한 애국 정신을 온 천하에 선양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경하해 마지 않습니다.

원래 우리는 “한 모금의 우물물을 마실 때에도 그 우물을 처음 판 사람의 노고를 잊지 말라”는 가르침으로 5천년을 살아 온 착한 백성이었습니다. 근래에 와서 우리역사·문화의 퇴락을 개탄하는 소리가 높고 또 그것이 사실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일제 식민지 시대를 거치면서 비틀리고 특히 6·25동란을 치르면서 잠시 상처를 입은 탓이지 그것이 우리 본래의 모습은 결코 아니라는 것 또한 분명합니다.

그런 뜻에서 오늘의 우리가 경제 건설에 성공하여 이제는 북한 동포를 도우면서 이만큼 살게 된 것도 당대 우리의 노력만으로 이룩된 것이 아니라 실로 오랜 역사와 문화의 뿌리가 살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세계에서 내노라하고 잘 사는 나라는 모두 자기 문화와 역사의 뿌리를 굳게 지켜온 민족이라는 사실이 이를 증명합니다.

물질적 풍요에 도취되어 이 뿌리를 소중히 여기는 정신이 점차 해이해져가는 감이 없지 않은 때에 새삼 순국선열 주논개 열사님과 백용성 조사님의 애국 정신을 기리는 이 행사는 다만 이곳 장수군과 장수 군민만의 행사일 수 없습니다. 실로 전 국민의 잠을 깨우고 애국 애족의 정신을 일깨우는 기폭제가 될 것을 굳게 믿고 또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다시한번 이 곳 장수 군민여러분과 이 거룩한 행사를 준비한 김상두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임원 여러분께 끝없는 경의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 9월 29일

전 고려대학교 총장
(사)세계孝문화본부 총재 홍 일 식



1956년 의암사를 건립한 이후 임의 거룩한 얼을 기리기 위하여 『논개제』로 출발한 제전행사는 이제 탄생지인 장수에서 논개를 자랑스런 철의 여인으로 다시 세우고자 하는 노력속에서 『의암주논개정신선양회』 출범과 함께

- 문화향수를 군민에게 돌려주고
- 논개의 충의정신을 한국, 세계속에 알리려는 행사로 기획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음.



민속놀이 한마당

- 군민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로 장수삼절(총절)의 정신을 널리 알리고 관광객이 참여하는 민속행사



창작 마당극 『논개』

- 의로운 인물 『논개』를 두고 지역분열을 부추기는 일부 인사들의 소모적인 논쟁은 논개정신을 올바르게 계승하는 모습이 아니기에 경상도 진주 젊은이들의 외침
 - 임진란 의병 상생굿
 - 논개 쟁탈전
 - 논개생애
 - 전라도, 경상도 의병 투합
 - 논개부활 - 동서화합의 굿판



『그리운 논개』 의암호수 공연

- 『논개』 일대기가 탄생지인 장수 의암호수에서 공연
 - 혼불봉송으로 시작되어 빛이 의암호수를 비추고 수상에서 뗏목을 띄워 『물과 빛과 혼불의 만남』으로 논개의 일대기를 그린 『그리운 논개』를 전라북도립국악원 단원들이 공연



의암 주논개 생가 준공식

- 군민의 여망에 따라 논개 조부모가 살았다는 곳으로 전해지는 곳에 터를 잡아 1986년부터 5년여만에 준공
 - 전라북도립국악원 공연
 - KBS전국노래자랑



영·호남 청소년 축제한마당

- 영·호남 청소년 의병들이 힘을 모았듯이 영·호남 청소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축제 한마당 잔치
 - 논개관련 퀴즈대회
 - 영·호남 대학 동아리 공연
 - 청소년 초청가수 공연(듀크)



영·호남 협연 국악과 충절무 공연

- 경상북도립국악원의 음악과 장수 여인들의 춤으로 논개일대기를 엮어내는 협연



논개선발

- 탄신 426주년기념 논개선발대회를 JTJ(전주방송국) 주관으로 17세 이상 25세 미만의 자를 선발



푸른음악회

- 가곡등의 음악을 접하지 못한 군민에게 희망을 주는 음악회
 - 지휘:하성호, 소프라노:최인애, 국악:최영숙, 테너:김창환
 - 대중가수:조영남, 유진박, 박호영



국제사과 심포지엄

- 장수에서는 리틀 사과밭이 여기저기 조성되어 있으며 사다리 없는 과원조성에 앞장 서고 극조생종인 새로운 장수사과를 개발, 서울 가락동등지에서 최고값으로 경매되 기도 함.
『작은사과나무』가 세계에 알려지면서 국제적 관심을 제고시켜 사과의 선진국인 일본 아오모리에서도 심포지엄에 참여



장수 장인전, 특별 기획전

- 장수장인전 : 장수출신 작가의 작품(벼루, 목공예, 전통악기, 부채, 용기, 도자기, 뿌리공예, 조각, 분재)
- 특별기획전 : 서예(장수출신작가, 진해시작가), 시화, 사진



특이사항

- 일본 후쿠오카 제일거류민단 40명 참여
- 중국 하남성 부성장외 10명 참석
- 철도청 관광열차 운행(서울-전주-장수)

의암 주논개 대축제 발자취



의암 주논개 선발대회 ▲



▲ 전국 초·중·고 학생무용경연대회



의암 주논개 제사 ▲



▲ 농악시연



▲ 축등행렬



체육행사 ▲

▼ 논개 충절무 창작발표회



장수의 표상(二德三節五義)

이덕(二德)



◇방촌 황희(黃喜)

- 1363 (고려 공민왕 12) 출생 ~ 1452 (이조 문종 2) 사망
- 아버지 군서가 장수현감으로 있을 당시 장수현 수내면 선창리 내아에서 출생
- 시호는 익성(翼成), 처음 이름은 수로(壽老)
- 1383 진사에 합격, 1389 문과에 급제, 1390 성균관 학관
- 고려가 망하자 두문동에 은거, 조선 태조의 간청으로 1394 (태조 3) 성균관 학관
- 1400 형조·예조·병조·이조판서, 우사간 대부
- 1418~1422 세자(양명대군) 폐출에 반대. 장계면 금덕리 유배
- 1427 좌의정, 1430 탄핵으로 파직
- 1431~1449 영의정
- 인품이 원만하고 생활이 청렴한 명신으로 후세 추앙
- 세종의 묘정에 배향, 파주의 방촌 영당, 상주의 옥동서원, 장수의 창계서원
- 황희의 묘 : 경기도 파주군 탄현면 금승리

◀ 방촌 황희 선생 동상 (장수 방촌공원내)



◇정신재 백장(靜愼濟 白莊)

- 1342 (고려 충혜왕 3년) 출생 ~ 1418. 10. 15 사망
- 휘는 장(莊) 자(字)는 명允 시호는 충숙(忠肅), 관향은 水源
- 1357 (공민왕 6) 성균관 진사시 포은 정몽주 선생으로부터 사사, 역학과 경서에 능함
- 1396년(태조 5) 해미땅으로 유배
- 1405년(태종 5) 장계면 월강리 유배
- 고려왕조가 무너지자 치악산에 은둔. 태종(1405)이 이조판서, 집현전 대제학, 세자 사부에 제수 특명을 하였으나 거절
- 1418 (태종 18) 황희 정승이 장수로 유배되어 백장선생을 조석으로 문안드림
- 태종, 세종조 이조판서를 지낸 큰 손서 송보산과 김남택이 처조부를 모시기 위해 벼슬을 버리고 낙향함.
- 1828년 월강사 창건 : 백장을 주벽으로 송보산, 김남택, 최경희등을 배향

▲ 정신재 백장 선생 묘소(장계 금덕리)

삼절(三節)



▲ 의암사(장수 두산리)

◇의암 주논개(義岩 朱論介)

- 신안주씨 부(달문), 모(밀양박씨), 1574. 9. 3 출생(4甲戌)
- 1591. 장수현감 최경회와 결혼
- 1592. 임진왜란시 최경회가 장수에서 의병 모집
- 1593. 6. 29 제2차 전투에서 진주성 함락
- 1593. 7. 7 적장 毛谷村六助를 안고 남강에 순절
- 논개에 관한 유적
- 1625. 남강바위 "義岩"이라 새김(정대웅)
- 1722. 진주에 의암 사적비 (최진한)
- 1740. 진주에 의기사 건립(남덕하)
- 1846. 장수 논개사당에 "축석의기 논개생장향수명비" (정주석)
- 1954~1956. 남산에 의암사 건립
- 1960. 논개생가지에 "의암주논개랑 생가지사적불망비" (김상근)
- 1987. 생가지 현위치 이전
- 1980. 주촌 초등학교에 동상 건립
- 1986년 동상 이전 (배형식)

- 1955. 논개영정 (김은호 화백)
- 1955. 사액 "의암사" 현판 (함태영 부통령)
- 1996. 의암 신안주씨 논개지여 정려각 (김상두)

● 기록

- 1621경 어우야담 : 유몽인
- 1617 (광해군 9) 동국신속 삼강행실록
- 1651 (효종 2) 양곡집 : 오두인
- 1779 (정조 3) 진주의기사기 : 정약용
- 1800 (순조원년) 호남절의록
- 1839 (헌종 5) 호남삼강록
- 1872 (고종 4) 호남읍지
- 1910 일사유기 : 장지연
- 1996 논개실기, 이애미 논개, 97 장수의 표상

◇ 순의리 백씨(殉義吏 白氏)

- 1678 (숙종 4) 3. 22 장수현감 조종면이 전주 감영 출장
- 현 장판리에 이르렀을 때 장끼 한 마리가 소리치며 뛰어 오름
- 이에 말이 놀라 마부가 말고삐를 놓쳐 현감이 말과 함께 송탄천에 떨어짐.
- 배리는 다하지 못한 책무를 통감. 손가락을 깨물어 암벽에 핏과 말을 그리고 "墮淚"라 새기고 현감을 따라 순절함.

- 이후 전해오는 주민들의 구전에 의하면 마부는 동인백씨, 조백비라 부르고 있고 현재 타루각이 서 있는 자리는 1922년 조백비가 토지 소유자로 되어 있음.
- 1802 (순조 2) 현감 최수형이 타루비를 세움.
- 1881 (고종 18) 현감 이현승이 순의리 비를 세우고 타루각을 세웠음.
- 1967 도로개설로 절벽의 흔적이 사라짐.
※ 동인 : 마부라는 노비의 명칭



타루공원(천천 장판리)▶



▲ 장수향교(장수 장수리)

◇ 증복 정경손(忠僕 丁敬孫)

- 1597 (선조 30) 정유재란 당시 주민이 피난을 모두 떠났음.
- 향교 지기인 정경손은 총칼로 위협하며, 성전을 불사르려한 왜군에게 몸으로 저지하자
- 기개에 감복한 왜장은 "어떤 사람이든 성전에 들어가지 말라"는 신표를 붙임.
- 이로 인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원형이 잘 보존된 향교가 됨.
- 1846. "호성 증복 정경손 수명비"를 향교 앞에 세움
- 1976. 부강문(외삼문) 좌측으로 옮김

오의(五義)



▲ 백용성 조사 생가지-죽림정사(번암 죽림리)

◇ 백용성 조사(白龍城 祖師)

- 1864. 번암면 죽림리에서 출생, 1940 열반 • 자는 白相圭, 관향 水源
- 14세에 남원의 덕밀암으로 출가
- 19세에 해인사에서 화월스님을 은사, 혜조율사를 계사로 정식 출가
- 1911. 서울 선당교당을 세워 3천여명 포교
- 1919. 3. 1 독립선언서에 불교계 대표로 서명(만해 한용운 스님의 스승)
- 10만여권의 불교서적(경전과 어록) 발간
- 선농일치의 이상적 수도 주창(경남 함양 백운산에 30여정보의 화과원 조성)
- 1962. 건국공로훈장 복장 추서
- 1998. 3월의 독립운동가 지정 (국가보훈처)
- 1998. 4 유허비 건립 (번암 죽림)



▲ 의사 전해산 추모비 (번암 노단리)

◇ 전해산 장군 (全海山 將軍)

- 1879. 오수면 국평리 출생, 1885. 번암 대론이거
- 1910. 7. 19 대구 형무소 사망
- 1910. 9. 8 부인 자결
- 이름 基泓, 자는 수용, 호는 해산, 관향은 天安
- 1907년 군대해산 통분. 스스로 의병을 일으킴
- 1908. "대동창의단" 의병장
- 광주, 무안, 함평, 나주, 장성, 순창 등 3년 7회 전투
- 1962. 건국공로훈장 복장 추서
- 대론 원촌 마을 앞 쌍분 분묘가 있음
- 노단 번암초등학교 앞 추모비 세움

◇ 정인승 박사(鄭寅承 博士)

- 1897. 계북면 양악에서 출생
- 1925~1935 고창고보 조선어, 영어를 가르침
- 1936~1940 "한글 맞춤법 통일안" 수정 및 기초 위원
- 1953. 문교부 국어심의회 위원
- 1957. 국정교과서 편찬위원회 위원
- 훈민정음 연구, 용비어천가 해설, 동국정운 등을 연구하였고
- "눈의 글" "31의 글" 등 많은 저서를 남김
- 1962. 건국공로훈장
- 1997. 유허비 건립(계북 양악)



▲ 정인승 선생 유허비(계북 양악리)

◇ 문태서 장군 (文泰瑞 將軍)

- 1880. 서상면 장수동 출생, 1897. 계북 당저이거
- 1905. 을사보호조약후 의병활동에 참여
- 1912. 함양군 서상면에서 체포, 1913. 2. 4 옥중 자결
- 1962. 건국훈장 대통령장
- 분묘 : 대전 국립묘지
- 전적비 : 문태서 전승 기공비 (구천동)
- 의병장 문태서 기공비(안의)
- 1997. 4. 양악 입구에 전적비 세움(김상두)

◇ 박춘실 장군(朴春實 將軍)

- 1875. 계북면 백암 출생, 1914. 6. 4 전주 형무소 자결
- 1905. 을사보호조약에 분개, 용담 구봉산 등지에서 의병 활동
- 1905. 5년간 60여 차례 전투
- 1977. 건국훈장 독립장 추서
- 분묘 : 대전 국립묘지
- 1997. 4. 양악 입구에 전적비 세움(김상두)



▲ 의병대장 문태서, 박춘실 전적비 (계북 양악리)

내고장 자랑(관광명소)



▲ 장안산 군립공원

조선 8대 종산이기도 한 장안산은 가을철 광활한 갈대밭과 정상에서 바라본 겨울철 설경이 절경이다.



▲ 덕산용소

용이 살았다는 전설이 있으며 바위 사이로 흐르는 청류수는 은쟁반에 구슬 구르는 소리 같다.



▲ 지지계곡

가을 단풍이 장관을 이루며, 산자수명하여 사계절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다.



▲ 방화동가족휴가촌

오토캠핑장 시설을 갖춘 심산유곡의 휴양지로서 여름철 가족 단위 캠프장으로 최적지이다.



▲ 와룡자연휴양림

와룡계곡의 자연림내에 연수의 집, 산막, 물.눈썰매장, 물놀이장, 잔디광장등 각종 휴양 편의시설이 완비되어 있어도심의 피로를 풀고 심신을 단련하기에 최적지이다.



◀ 토옥동 계곡

남덕유산의 여러 골짜기 중 가장 웅장하고 수려한 계곡이다.





▲ 사 과
장수는 산간 고랭지대로 주야 일교차가 커 사과재배 적지로서 당도가 높고 맛과 향이 독특한 사과를 생산, 전국제일의 사과로 각광을 받고 있다.



▲ 오미자



▲ 석 기



▲ 토종돼지



▲ 버 루



한 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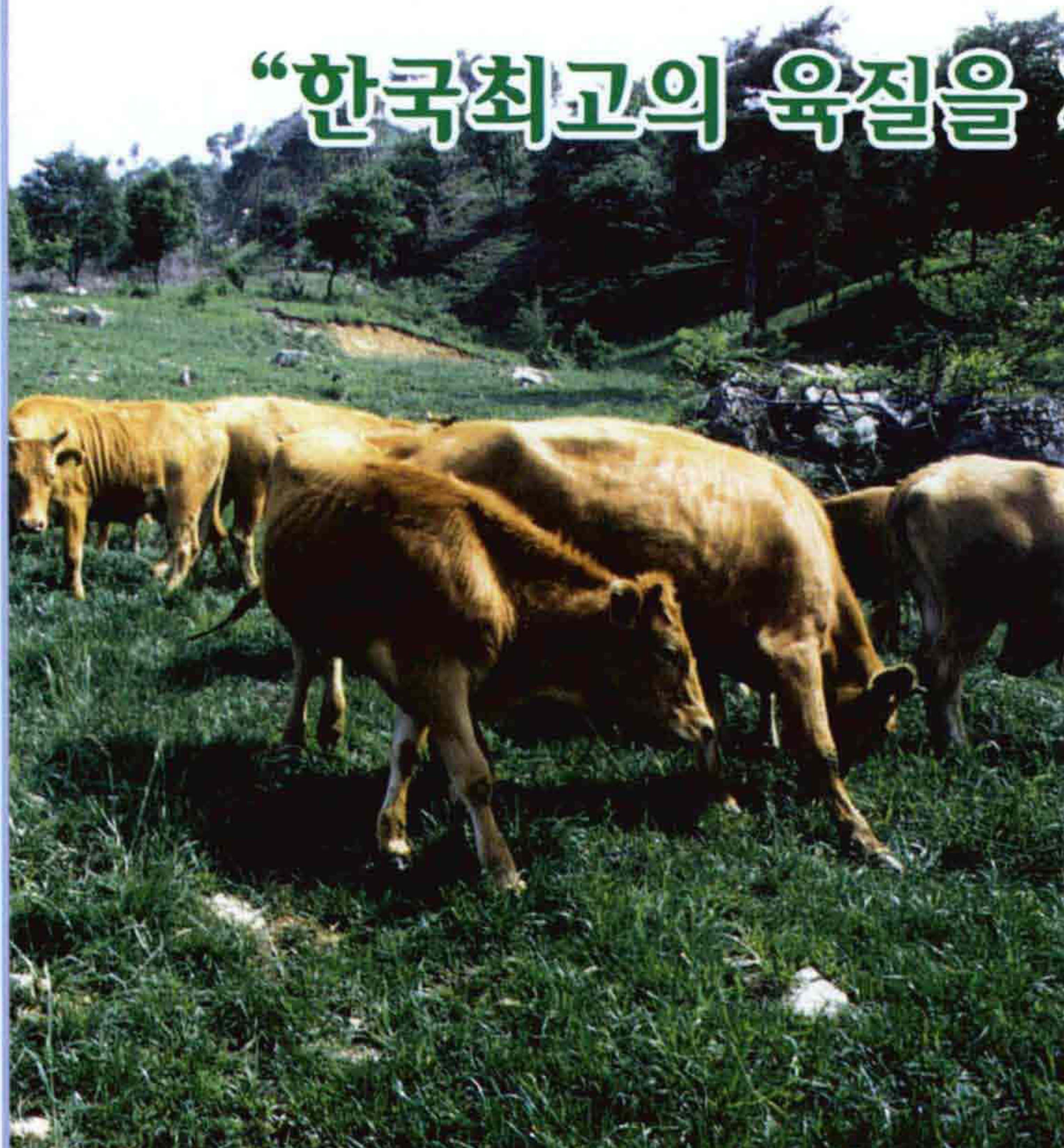
농협

농업인과 군민 모두 더불어
살아가는 상생을 위해....

“그 중심에 농협이 서겠습니다”

농협중앙회장수군지부 지부장 이희찬
장수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양진기
장계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이택열

“한국최고의 육질을 자랑하는 장수한우”



장수한우 '99년 전국 한우능력 평가대회

'2000년 전국 한우고급육 생산품평회

2년연속 최우수상 수상

 장수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 장재영 외 임직원 일동



탄신 426주년 의암 주논개 대축제 및 제33회 군민의날



KORNET
http://www.kornet.net

Cyber world
Leader

대한민국 초고속 인터넷



Megapass
ADSL



 한국통신장수전화국

TEL. 351-0200
352-0200

농민보호는 우리담배애용으로!



한국담배인삼공사
KOREA TOBACCO & GINSENG CORPORATION

장수영업소

소장 최 학 도



탄신 426주년 의암 주논개 대축제 및 제33회 군민의날



내집 짓는 마음으로
품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株式會社 東南

레미콘/아스콘/쇄석골재/펌프카

TEL. 063-353-0115~7

626-0909

FAX. 063-353-0118

지역문화 발전을 위하여 東南은 열심히 뛰겠습니다.

토공 · 철근 콘크리트공사 전문 건설업체
골재 채취업 등록업체



(유) 장 수 개 발

전북 장수군 장수읍 선창리 366-1

TEL. **063-351-2173**

대 표 김 길 래



항상 최선을 다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우진산업주식회사

전북 장수군 계남면 신전리 1316-2
TEL. (063) 353-0908
353-1018
직통. 353-1809
휴대폰. 011-659-8184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우진산업

활공청년회

회훈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지역을 위하여

회장 : 황종호
부회장 : 문종태
사무장 : 이광석
환경부장 : 전일수
문화체육부장 : 정원상

직전회장 : 이성춘
부회장 : 허윤중
총무교육부장 : 차주영
지역사회부장 : 김종석
제전기획팀장 : 박귀현



Euiam Ju Nongae Festival

『論介의 愛人이 되어서 그의 廟에』 中에서

韓 龍 雲

날과밤으로 흐르고흐르는 南江은 가지 안습니다
바람과비에 우두커니섰는 矗石樓는 살가튼光陰을따라서 다름질칩니다
論介여 나에게 우름과우습을 同時에주는 사랑하는論介여
그대는 朝鮮의무덤가운데 피엿든 조흔꽃의하나이다 그래서 그향기는
씩지안는다
나는 詩人으로 그대의愛人이되얏노라

千秋에 죽지안는 論介여
하루도 살수업는 論介여
그대를사랑하는 나의 마음이 얼마나 질겨우며 얼마나 슬프것는가
나는 우습이제워서 눈물이되고 눈물이제워서 우습이됩니다
容恕하여요 사랑하는 오오 論介여